

영어 예열 지문: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번

Q.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We [①become entrusted / ②to teach]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s, values, attitudes, skills, and information about the world.

Erikson believes that (when we reach the adult years), several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stimuli trigger a sense of generativity. A central component of this attitude is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 (①) For the majority of people, parenthood is perhaps the most obvious and convenient opportunity to fulfill this desire. (②) Erikson believes that another distinguishing feature of adulthood is the emergence of an inborn desire to teach. (③)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when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is joined with the events of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the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and the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④) According to Erikson, by becoming parents we learn that we have the need ①[to be needed by others] who ②[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⑤) By ①+②[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primary caregivers to children] through their long years of physical and social growth, we concretely express what Erikson believes to be an inborn desire to teach. [3점]

[주어진 문장 접근]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가능한 내용은:

에릭슨이 믿었다. 무엇을

(우리가 성년이 되었을 때)

외부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학적 자극이 일반상식(a sense of generativity)을 야기한다고.

주어진 문장의 해석:

우리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 기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가르치는 일을 위임받게 된다.

첫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이 해석에서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내용은:

'가르치는 일을 위임받게 된다.'이며,

이는 영어로 'become entrusted to teach'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을 '①become entrusted / ②to teach' 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왜 위 내용을 도저히 못 떠올릴까요?

- ②의 경우

첫 번째 문장에서 외부의 자극이 개인의 일반상식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인간 외부로부터 인간 내부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행위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위이므로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①의 경우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We'이며, 이 행위를 할 것이라 믿는 주체는 'We'가 아닌 '누군가'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We'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수동태의 형식을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어 예열 지문: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번

[문제풀이]

지문에서 'to be needed by others'를 ①로 표시한 이유는 직접 'other'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We'가 아닌 다른 존재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를 ②로 표시한 이유는 가르침의 선행조건인 타인의 지식에 의존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지문의 내용을 통해 주어진 문장에서 떠올릴 수 없었던 [①become entrusted / ②to teach]를 떠올릴 수 있는 근거, 즉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5번 이후

'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primary caregivers to children' 라는 표현을 통해 '①+②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위임받음' 이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25.0%)으로 가는 이유]

먼저 엄밀하게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말한 것에 존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적용하는 고등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풀면, 4번과 5번을 구분하는 기준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정답이 4번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According to Erikson, by becoming parents we learn that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문장에 because와 같은 선행조건을 표시하는 연결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4번이 정답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역할을 연결어가 없을 경우, 우리는 논리를 파악할 때 순행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석과 EBS풀이를 천천히 읽어봅시다.

해석

Erikson은 우리가 성년에 이를 때, 몇 가지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자극이 '생식성'에 대한 인식을 촉발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태도의 한 가지 중심적인 구성요소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이다. 대다수 사람에게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마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가장 분명하고 편안한 기회일 것이다. Erikson은 성인기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가르치고자 하는 타고난 욕구의 출현이라고 믿는다. 신체적으로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일이 헌신적인 관계, 성인 생활 패턴의 정착, 그리고 업무 책임 떠맡기에 참여하는 일들과 결합할 때 우리는 이 욕구를 인식하게 된다. Erikson에 따르면,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식, 보호, 그리고 지도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필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 기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가르치는 일을 위임받게 된다. 아이들이 신체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일차적인 돌봄 제공자가 되는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우리는 Erikson이, 가르치고자 하는 타고난 욕구라고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EBS풀이

이 글은 Erikson이 제시한, 성년기에 이르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즉, 생식성 인식과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은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위임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은 우리가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즉 자녀에 의해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다시 말해, 자녀를 가르침으로써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문장인 ⑤ 앞의 문장과,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계속 아이에게 일차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 즉 아이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Erikson이 믿는, 가르치고자 하는 타고난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마지막 문장 사이인 ⑤에 들어가야 한다.